

# 뚝배기



김 주 식 의  
세태 만화경

첫 해가 불쑥 떠올랐다. 나는 새해가 되면 운동회의 달리기를 상상하곤 한다. 하얗게 줄친 출발선에 발을 굳게 내디뎠던 그 맹랑한 모습을. 새로운 시간과 스키는 시간과의 맞바람 속에서 머리카락이 나부꼈다. 험령한 운동화의 끈을 꼭꼭 동여매며 얼마나 두근거렸던가. 눈빛은 또랑또랑 빛났다. 전력 질주할 태세였다. 목표 지점은 가마득했지만, 마음은 벌써 결승 테이프에 달려가 있었다. 심호흡을 했다. 그러다 출발 신호가 메아리치면 찢 먹던 힘을 다해 내달렸다.

그렇게 한해를 달려갈 달력을 바라본다. 365일 코스. 그 출발선 앞에 서면 매년 그랬듯이 설레고 긴장된다. 이제 이 끝이 나서 무덤덤할 만도 하련만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듯 여전히 나를 흔든다. 굽이치는 윈 두 개의 주일을 거쳐, 스무네 번의 절기 변화와 네 번의 광활한 계절을 지나, 열두 산맥을 넘어야 하는 대장정! 달력 속에 펼쳐진 하루하루의 백넘버들을 어루만져 본다. 묘한 열기가 느껴진다. 박동치지 않는 날짜들이 없다. 살아 숨 쉬는 소중한 날들이다.

새해는 이리 가슴 벅차게 밝아왔다. 새해의 커튼을 여는 초읽기에 들어갔을 때 한 초 한 초가 그렇게 소중한 수가 없었다. 금쪽같은 시간을 실감했다. 삶을 가꾸고 꽃피우게 할 살아 있는 세포들이니 그럴 것이다. 아, 이렇게 눈으로 보고서야 시간의 귀함을 깨닫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스친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사용하기에 따라선 그 총량의 무게가 다르고, 시간 세포에 온도차가 있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삶의 질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동산에 올라 해를 바라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쥐어본다. 해는 태생적으로 신비하다. 매 순간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우리네 마음을 읽고 그대로 비춰주기 때문일 게다. 희망으로 보면 희망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삶이 팍팍할 때 문득 고개를 들어 해를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그런 에너지를 얻고자함인지도 모른다. 올해도 전국의 일출 명소마다 수십만 명이 북적거렸더라. 찌든 일상을 불태우고 새 소망을 축원했으니 해에게서 희망을 보았을 게다.

시작이라는 출발에는 종착역이 있다. 사람들은 새 아침에 저마다의 종착역에 간판을 내걸었을 터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가치들이다. 며칠 전 우연히 한 음식점에서 혼밥을 하면서 그 하나를 건졌더라. 음식점은 가게들이 어깨를 맞대

고 이어진 좁은 골목 안쪽에 들어앉아 있었다. 메뉴는 서너 종류가 보였다. 냉큼 부대찌개를 주문했는데, 이 가게 간판 메뉴여서 만은 아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푸푸 끓으며 군침을 돌게 한 그것이 강력 추천하고 있었다.

반찬이 나오기에 부대찌개도 곧 등장하겠거니 생각했다.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째 올라오면 옆 테이블처럼 군침 돌게 끓일 참이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다. 마음은 일찌감치 찜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웬걸 뚝배기를 내놓는다. 잘못 가져왔나? 싶었는데 주인아저씨가 주문한 부대찌개란다. 주방에서 직접 끓였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오래 달궈졌는지 뚝배기는 보글보글 맛갈스럽게 끓고 있었다. 순간 잠시 허탈에 빠졌던 미각이 되살아났다.

맛이 기가 막혔다. 뚝배기와 부대찌개. 특정 요리를 이런저런 용기로 끓이려는 법은 없지만 부대찌개 하면 아무래도 무쇠 뚜껑이나 양은 냄비가 떠오른다. 이상식을 갠 뚝배기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었다. 뚝배기는 어떤 요리든 받아주는 큰 그릇이었다. 그 포용력으로 부대찌개를 웅송깊은 새로운 맛을 창출했던 거다. 마음씨 역시 따뜻하고 포근했다. 마지막 국물 한 숟가락까지 변함없이 온기를 지켜주고 있었다. 새해 내가 뽑은 최고의 그릇이다. /연인인-세태평론가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임직원 배식 이벤트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오른쪽)은 2일 새해 첫 출근일을 맞아 을지로 본사 25층에 있는 S-라운지에서 임직원들에게 점심 배식을 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신한카드가 같은날 밝혔다. /신한카드



SC제일은행, 타임카드 이용 적립금 기부  
SC제일은행은 지난달 29일 서울 수유동 소재 한빛맹학교 본관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모든 타임카드 이용 적립금 1억3565만원을 고객명의로 시각장애인 연주단인 '한빛예술단'에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 SC제일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고객의 동의를 받아 카드 이용금액의 0.1%를 기부금으로 적립했다가 매년 연말 사회공익 단체에 기부, 올해까지 7년 동안 약 13억여원을 사회공익을 위해 기부했다. 올해 타임카드 기부 적립금은 1억3565만원으로 총 3만 7000여 명의 고객이 기부에 동참했다. 홍성준 SC제일은행 카드상품팀 이사(오른쪽)와 김양수 사회복지법인 한빛예술단 이사장. /SC제일은행

# '워라밸'의 명암



기 지 수 첩  
김 유 진  
(유통&라이프부)

유통업계가 파격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저녁이 있는 삶',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표방하며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열풍에 앞장서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임금 하락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내세웠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보다 5시간 단축, 주 35시간 근무제로 전환한다.

이마트 영업시간도 기존 자정까지 운영하던 것에서 폐점시간을 밤 11시로 1시간 앞당길 예정이다. 롯데마트도 전팀

자율좌석제 도입, 사무실 강제 소등등으로 워라밸 정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많은 직장인들이 이 향상된 워라밸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계는 워라밸 향상을 위한 해당 제도를 '고용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지난달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이마트의 주 35시간제 도입에 대해 "인력충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소득 상승 없는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계의 경우에는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올라 기존만큼 일을 하면

임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 상승 기대도 접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 회사측이 핏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가 인상된 7530원이다.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로서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마트업계 뿐만 아니다. 워라밸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며 조근·야근 수당을 없애자 오히려 기존 대비 수익이 줄어 해당 제도에 대한 불만이 들린다.

모든 변화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이다. 일자리가 아쉬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만이 터질 수 밖에 없다. 이제 시작된 워라밸 제도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업문화로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ujin6326@metroseoul.co.kr



동아쏘시오그룹, 2018년 시무식 개최  
동아쏘시오그룹은 2일 오전 본사 7층 대강당에서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시무식을 가졌다. 임직원 모두는 시무식 자리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기며 다가올 큰 변화를 슬기롭게 맞이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2일 한중현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이 2018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낭독하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



보령제약, 100년 기업 도약 다짐 시무식  
보령제약그룹은 2일 서울 종로구 원남동 본사에서 중보홀에서 시무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령제약그룹은 2017년 창업60주년을 맞아, 지난 60년의 도전과 성과를 바탕으로 100년 기업으로 도약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그 첫해인 2018년을 '100년 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았다. 2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진행된 2018년 보령제약그룹 시무식에서 보령염지합창단이 신년맞이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있다. /보령제약그룹



JW중외제약, 현장서 새해 새출발 다짐  
JW중외제약이 현장에서 새해 새출발의 길을 열었다. JW중외제약은 올해 경영방침을 지난해에 이어 '스마트 JW; 지속적 성과'로 확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로 ▲수평적 소통 ▲일사불란한 실행을 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한성권 JW홀딩스 사장을 비롯한 계열사 대표들과 임직원들이로비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JW중외제약

- 인사**
- ◆서울에너지공사 ◊ 실·차·지사장급 ◊ 감사실장 이순재 ◊ 서부지사장 강 노 ◊ 기술처장 신병국 ◊ 건설처장 강용훈 ◊ 부장급 ◊ 서부지사 배관부장 황순조 ◊ 서부지사 발전운영부장 박용규 ◊ 동부지사 고객지원부장 김용준 ◊ 기술관리부장 한진백 ◊ 환경안전부장 정연태 ◊ 사업개발부장 신홍영 ◊ 건설기획부장 방재복
  - ◆KTB금융그룹 (KTB투자증권) ◊ 전무 승진 ◊ 구조화금융센터 이승대 ◊ 상무 승진 ◊ 전산실 김영호 ◊ 상무보 승진 ◊ P팀 인준용 ◊ 채권금융팀 장형수 ◊ 대체투자팀 유병수 ◊ 인사총무팀 광황영 ◊ 감사실 한승환 ◊ 이사대우 승진 ◊

- 영업부 김종덕 ◊ Credit Market팀 이동현 ◊ 법인영업2팀 류종열 ◊ 대체투자팀 정성민 ◊ 재무팀 김덕연 ◊ 기업분석팀 이혜린 ◊ 부장 승진 ◊ 영업부 윤성희 ◊ 자산운용팀 박승환 ◊ IT운영팀 김홍규 ◊ 기업금융2팀 손광수 ◊ SF 사업팀 이주형 ◊ 기획팀 김윤주 ◊ 전무 선임 ◊ 투자금융본부 홍영길 (KTB자산운용) ◊ 상무보 ◊ 임재상 ◊ 권정훈 (KTB네트워크) ◊ 전무 ◊ 정도 ◊ 상무 ◊ 이승호 ◊ 임동현 ◊ 박선배 ◊ 상무보 ◊ 김재한 (KTB PE) ◊ 전무 ◊ 최명록 ◊ 상무 ◊ 이상범 ◊ 신용훈
- ◆보령제약그룹 ◊ 보령제약 ◊ 부사장 이삼수 ◊ 전무 명제혁 ◊ 상무 지왕하 ◊ 박시훈 ◊ 김영석 ◊ 김달현 ◊ 이사 김기덕 ◊ 신상수 ◊ 보령홀딩스 ◊ 이사 이영 ◊ 보령메디앙스 ◊ 대표이사 이훈규 ◊ 보령컨슈머헬스케어 ◊ 대표이사 박인호 ◊ 보령바이오파마 ◊ 상무 이소영
- ◆서울대병원 ◊ 대외협력실장 조영민 ◊ 진료지원실장 한일규
- ◆종근당 ◊ 종근당 ◊ 전무 이윤한 ◊ 상무 강종한 ◊ 이사 이성규 ◊ 문승기 ◊ 구태영 ◊ 유근호 ◊ 백인현 ◊ 경보제약 ◊ 전무 손화주 ◊ 이사 이춘봉 ◊ 종근당 바이오 ◊ 상무 최인석 ◊ 이사 김세진 ◊ 종근당건강 ◊ 사장 김호곤 ◊ 전무 박성선 ◊ 이사 김영우

- ◆경기도 ◊ 안양부시장 이진찬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 서울사무소장 최은석
- ◆전북도 ◊ 국장급 ◊ 환경녹지국장 이승복 ◊ 경제산업국장 나석훈 ◊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임민영 ◊ 공무원교육원장 신동원 ◊ 과장급 ◊ 인권센터장 장경운 ◊ 세계재민리추진단장 박현규 ◊ 안전정책관 이태현 ◊ 회계과장 송현숙 ◊ 농촌협력과장 김성관 ◊ 축산과장 김창열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1721-9800, FAX: 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 정 규  
편집국장 이 정 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3  
독자센터 021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206

- 부음**
- ▲김경채씨 별세, 정일우(한국필름모리스 대표이사)·현정씨 모친상, 김홍중 씨 장인상, 이진경씨 시부상 = 1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15호실, 발인 3일 오전 9시 ☎ 02-3410-3151
  - ▲이은용씨 별세, 이강결(인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헤미씨 부친상, 이강혁(비즈트리뷰 부국장)씨 장인상 = 2일 인천 송림동 청기와장례식장 402호, 발인 4일 오전 8시 20분. ☎ 032-583-4444
  - ▲김영석 씨 별세, 김병구씨 부친상, 김용하(양주소방서 소방교)·동해(문화일보 정치부 기자)씨 조부상 = 2일 11시, 경북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9시 ☎ 054-245-0444